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자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온데로운 대양의
풀속에서 조선소년
단창립 70돐을 뜻
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은
꿈없는 환희와 궁
지에 넘쳐 앞날의
조건을 떠나고나가
는 믿음직한 계승
자들로 준비해나갈
충성의 결의로 가
슴 불태우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
년단 전국련합단
체 대회가 6일
평양에서 진행되
었다.

대회장인 금수산
데야궁전광장은 한
없이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으로
주체적소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
걸로 이끄시고 이
땅우에 『세상에
무 림 없이 봄과』
의 노래 소리가
높이 울려퍼져는
가장 우월한 사회
주 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 대 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
움에 훠썩 어여 있
었다.

금수산데야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 대 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 의
해님!』,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
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라는 구호관
들이 대회장에서 세워져있었다.

또한 『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님을
따르는 해바라기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
가 되자!』,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관들이 대회
장에 세워져 있었으며 광장상공에는
『경축 6·6』, 『총성동』, 『효자동』
이라는 글씨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대회에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
사 대표들과 시암의 학생소년들이 참가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봉래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
을 당파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학생소년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
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삶을 드리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
의 노래』주악과 함으로 대회는 시작되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300만 소년단
원들이 드리는 결의문을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미사가 선창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온 나라 소년단원들
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

우리들은 한평생 후대들의 행복과 밝은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을 영원한 주체의 해님으로 전세민에 높이
발들여 모시며 조선소년운동에서 빛나울리
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개히 흥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겠
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활된
삶과 행복도 있고 아름다운 희망도 풀려
날수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황일아동단의 김기총, 김금순영웅들을
조국에 발전경쟁시기 소년빨찌 살풀쳐 헌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목숨바쳐 결사옹
위하는 선군시대의 친민 소년근위대가 되
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흥대를 사랑하고
앞날의 욕망을 품고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온 나라 소년단원들
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한평생 후대들의 행복과 밝은
앞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을 영원한 주체의 해님으로 전세민에 높이
발들여 모시며 조선소년운동에서 빛나울리
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개히 흥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겠
습니다.

백두의 청진한 공기와 정澈한 물을 마시
며 자라난 소년단원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
은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일백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
신, 백두의 깔비왕정신을 빠속길이 새긴 소
년혁명가가 되겠습니다.

청천지원주 미제와 일제, 남조선파괴역적
대당을 끝없이 미워하고 전백제로 복수하
는 소년절사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새상을 출애굽은 세계적인 발
명가, 과학자가 철로부를 암고 짐시간도
첫비피 보내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학습장과 성적층에 5점짜리 학적 피어온
새 앞날의 과학기술강국을 떠내고나갈 주
인공이 되겠습니다.

자강력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아
버지, 어머니들처럼 어려서부터 자기 힘
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을 따라 언제
나 끝나보 나아가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지역체를 겸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
여 항상준비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것
을 굳게 결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의
노래주악과 함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
들고 산악같이 맷쳐나 만미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아버지, 어
머니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
주의 강국건설의 나아린 참전자가 되겠
습니다.

청천지원주 미제와 일제, 남조선파괴역적
대당을 끝없이 미워하고 전백제로 복수하
는 소년절사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새상을 출애굽은 세계적인 발
명가, 과학자가 철로부를 암고 짐시간도
첫비피 보내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학습장과 성적층에 5점짜리 학적 피어온
새 앞날의 과학기술강국을 떠내고나갈 주
인공이 되겠습니다.

자강력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아
버지, 어머니들처럼 어려서부터 자기 힘
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을 따라 언제
나 끝나보 나아가겠습니다.

제일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믿음을 지
니고 계획을 기우
며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자
강력체일주의정신
의 소유자가 되겠
습니다.

당원의 영에 와
영웅의 금발머털도
붉은넥타이와 소년
단휘장에서부터 시
작된다는것을 명심
하고 소년단조직생
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활동하며
높은 혁명성과 조
직성, 규률성과 자
립성, 창발성, 집단
주의 정신을 지닌
모임소년단원이 되
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발들이 나가는 대
조선 소년 단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 일 성, 김 경 일
소년단으로 강화발
전시키며 소년단원
의 영에 품 물었이
빛내이는 걸이 있
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소년단사업
을 하나 해도, 한걸
음을 걸어도 오직
원수님의 가르치심

나를 따라 언제
나 끝나보 나아가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지역체를 겸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
여 항상준비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것
을 굳게 결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의
노래주악과 함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
들고 산악같이 맷쳐나 만미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아버지, 어
머니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
주의 강국건설의 나아린 참전자가 되겠
습니다.

청천지원주 미제와 일제, 남조선파괴역적
대당을 끝없이 미워하고 전백제로 복수하
는 소년절사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새상을 출애굽은 세계적인 발
명가, 과학자가 철로부를 암고 짐시간도
첫비피 보내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학습장과 성적층에 5점짜리 학적 피어온
새 앞날의 과학기술강국을 떠내고나갈 주
인공이 되겠습니다.

자강력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아
버지, 어머니들처럼 어려서부터 자기 힘
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을 따라 언제
나 끝나보 나아가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웨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만났다

웨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를
만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6일 땅
중앙위원회청사에서 웨남공산당 중앙위원
회 총비서 웨남 중앙위원회 총비서 푸 푸 풍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웨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푸 푸 풍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인사
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인 최태복동지에게 전했다.

최태복동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대회를
진행되고 웨남 풍동지에게 흥미로운 대
선행과

70일전투의 그 정신, 그 기세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당의 과학전사! 그 부름에 빛나는 삶이 있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새 세대 과학자들

리승기, 임목재!

조국과 민민이 알고 민족사에 빛나는 이름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잊을 수 없는 혁명통지로 높이 내세워 주신 우리 당의 창원과학전사들의 이름은 충정의 2010년전투에 펼쳐나선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청년과학자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절은 길을 따랐던 그것이 아니란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정신과 우리 인민의 습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대대와 대단위로 뛰어넘으며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5월초 럭사적인 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제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조종장치연구소 청년과학자들은 마음속에는 세찬 감격의 파도가 물결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잊지 못하는 두 과학자의 및 나는 이름속에 당의 위엄실현에 이바지한 온 나라 과학자들과

당 제7차대회 결성판결로 끝이었지만 그들은 남에게 중요하고 앞장에서 내달리는 데 오가 있다. 세관군 북지점동농장 제1작업반원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들이 이겁니까.»

현장에서 만난 작업반장 윤봉석동무의 말이었다.

뜻깊은 윤봉석동무에게

함께 이름없는 과학자였던 자기 아버지의 삶까지도 다 담아 빛내여주시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도 선군시대 풍토로 자신의 청년이 머물며 노력영웅,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시영동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제형 수자조종장치를 개발한 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기의 데를 이어 조종기계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청년과학자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조선로동당이 있다.»

박진혁동무는 이버지의 뒤를 이어 다음세대 경제형 수자조종장치 연구소에 저지와 정열을 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CNC의 첨단에서 나아가는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원이 된 그는 대학원생으로는 학생생활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 밑에 수재양성기지들이 꾸려지면 그 나날에 김혁철동무는 수재반에서 꿈꾸는 영광을 저니에 이른 말을 남겼다.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던가. 또 얼마나 칭창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있었던가.

대학을 졸업하고 CNC의 첨단에서 나아가는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원이 된 그는 대학원생으로는 학생생활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절은 길은 절을 따랐던 그것이 아니란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정신과 우리 인민의 습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대대와 대단위로 뛰어넘으며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5월초 럭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성판결로 끝이었지만 그들은 남에게 중요하고 앞장에서 내달리는 데 오가 있다. 세관군 북지점동농장 제1작업반원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분조별, 농장원세대별사회주의경쟁에 헌신하는 충정의 200일전투를 끝내고 윤봉석동무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분조별, 농장원세대별사회주의경쟁에 헌신하는 충정의 200일전투를 끝내고 윤봉석동무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느때없는 희열과 열정이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달파수령의 두리에 굽어 끌어당길 동력을 위하여 둘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밀집적 한 주인으로 자랑 낫습니까!»

얼마나

